

축산단체장들, 한·미FTA 고위급회담 반대 기자회견



▲ 지난 3월 19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는 한·미FTA 농축수산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한·미FTA 농업부문 고위급 회담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미FTA 추진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지난 3월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같은 시각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는 한·미FTA 농축수산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한·미FTA 농업부문 고위급 회담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과 한미FTA에 대한 강한 반대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함과 동시에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1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농민관련 단체 등과 함께 한·미FTA 고위급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우리 농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투쟁은 19일부터 21일까지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3일간 진행되었으며 22일부터는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단식투쟁을 펼치고 있다.

단식농성에는 김동환 양돈협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강준수 양륙협회장, 전기현 양봉협회장 등 축산업계 단체장 대다수가 함께 했다. **양돈**